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 시민에 8억7천만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 56% 전국 최고
상반기 19만가구 3만4천220t 감축 실적

광주 지역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5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민이 지급받은 탄소중립포인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8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2025년 상반기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4만4천209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로 7억4천여만원을, 자동차 운행 거리를 감축한 1천822명에게 1억3천여만원 등 총8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제도로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3개 부문이 있다.

에너지 부문은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을, 자동차 부문은 운행거리 절감, 녹색생활실천 부문은 일상에서의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현재 광주시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는 37만4천여가구이며 이는 가입률 56%로 전국 최고다. 이들 가운데 19만67가구가 2025년 상반기에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 3만3천55t을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69만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약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

은 3천143대로 이 중 1천822대가 운행 거리를 절감해 667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7만여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2026년 자동차 부문 사업을 더욱 확대해 5천여대 이상 참여 차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연중 광주시 누리집이나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매년 2~4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약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 규제개선 성과' 광양시 최우수

고흥군·신안군 등 우수 시·군 시상

전남도는 23일 목포 샴그리아호텔에서 '2025 규제혁신화 우수 시·군 시상식'을 열고 한 해 규제 개선에 기여한 시·군의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

행사는 우수 시·군 시상, 규제개선 사례 발표, 인문 교양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시·군 시상에서는 광양시가 규제로 중단된 지역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한 성과를 인정 받아 최우수상과 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고흥군과 신안군은 중앙 규제 신규 발굴과 현장 토론회를 통한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또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한 담양군, AI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 해남군,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쓴 함평군이 장려상과 상금 180만원을 각각 받았다.

규제 개선 사례 발표에서는 함평군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사례를, 신안군이 '가공전선로 설치를 위한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2개 사례는 지난 11월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쓴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규제 개선과 함께 AI·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김용태 前 전교조 지부장 "광주시교육감 출마"

“신뢰 회복·사람 중심교육 실현”



김용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23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김용태 전 지부장은 "지금 광주교육은 멈춰 서 있다"며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청렴도 하락과 불통 행정으로 광주교육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실효성이 있는 비리 근절 대책과 민주적 교육행정으로 청렴 광주교육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부장은 교권과 학습권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감 직속 찾아가는 교권보호팀 설치, 학교별 학생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한 신뢰 회복을 공약했다.

또 품격 있는 학생, 품격 있는 학교를 위해 인성교육 강화, 가짜뉴스 대응과 비판적 사고력 교육, 공감과 존중이 살아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약속했다. /박선옥 기자

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사용기한 없음
 365일 관리 전문 이장
 가족구성 가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학교로 찾아온 산타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산타 분장을 하고 광주 북구 용주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풍선을 나눠주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조미김 美상호관세 면제…전남 김 수출 청신호

지난해 美수출액 1억553만달러 기록
점유율 확대·가격 경쟁력 강화 기대

조미김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됨에 따라 전남산 김 미국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월14일 자국 내 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식품에 대해 상호관세(15%)를 예외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미김이 해당 면제 품목에 포함돼 미국에서 전

남조미김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남 김 총 수출액은 3억6천41만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1억553만달러(2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62% 증가한 규모로 미국이 전남 김 수출의 최대 성장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된 김 물량의 98.5%가 조미김으로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조미김 중심의 수출 구조와 맞물려 실질적인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전남 조미김의 미국 수출액은 2022년 6천9만달러, 2023년 6천282만달러, 2024년 1

억402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66% 증가해 조미김이 미국 시장에서 핵심 수출 품목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미국 대형 유통망을 통한 주문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안 소재 수출업체 주신안천사김은 최근 미국 코스트코의 조미김 주문량 증가에 맞춰 적기 생산과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조미김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조미김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사용기한 없음
 365일 관리 전문 이장
 가족구성 가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